

# 장성군, 328점 토종 종자 수집 '한국의 맛' 잇는다

### 11개 읍면서 콩·팥 등 34개 작물 99품종 식물유전자원 확보 재배농 생산 면적 확대 활용...농가 소득 향상·토종 먹거리 확산

장성군이 토종 농산물 종자 수집을 완료했다. 농업의 기초가 되는 식물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종자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토종 종자보존과 '한국의 맛'이라는 두 토끼를 잡을지 주목된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11개 읍면 79농가에서 34작물 99품종 328점에 달하는 토종 종자를 수집했다.

삼계·북아면에서 가장 많은 종자를 수집했으며, 콩이나 팥 같은 식량 종자가 주를 이뤘다. 장성군이 토종 종자 수집에 집중하는 이유는 토종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다.

토종 농산물은 전통적인 '한국의 맛'을 구현하는데 알맞다는 판단이다.

재배 과정에서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전통농법을 사용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합한다.

국내 환경에 잘 적응된 품종이라는 것도 강점이다. 강한 생명력을 지녀 병충해가 발생하더라도 씨앗을 남길 수 있다.

다양한 품종을 적은 양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물을 대량 재배하는 '단작화'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단작화 농법을 사용

하면 땅의 양분이 한 작물에만 집중돼 다른 농사를 지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

장성군은 수집된 종자 일부는 기초작업을 거쳐 자료와 함께 보존하고, 나머지는 토종 농산물 재배 농가 조직화와 생산 면적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토종 농산물 재배농가 간 계약재배를 통해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로도 확보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정관스님 사찰 음식과의 연계를 통한 상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토종 종자 수집을 통해 건강하고 신선한 토종 먹거리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 소득 향상과 미식도시 완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이 11개 읍면 79농가에서 확보한 농산물 토종 종자. <장성군 제공>

## 담양보건소 신축·이전...2026년 완공 목표

###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내년 3월 착공...다목적 공간 조성

담양군이 통합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를 신축 이전한다.

24일 담양군에 따르면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와 역할 확장,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소 이전 신축을 추진한다.

보건사업이 진료 기능 중심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 등의 예방 중심 사업으로 확대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민선 8기 대표 공약의 하나인 담양군 보건소 이전 신축에는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 65억원, 도비 16억원, 군비 219억원)이 투입된다.

새롭게 재탄생할 보건소는 전년의 문과 대나무 박물관 사이인 담양읍 전변리 400-1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부지 1만 7000여㎡, 총면적 7000여㎡ 규모에 지상 3층으로 조성된다.

주변 시설과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사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산책하듯 이르는 일상 속의 보건소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동서남북 사면에서 접근이 쉽도록 다양한 접근 동선을 고려했으며, 남녀노소 누구든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저층으로 구성했다.

또한 하늘가든과 중정 마루를 통한 산책과 휴



2025년에 착공예정인 담양군 보건소 조감도. 부지 1만 7000여㎡, 총면적 7000여㎡ 규모에 지상 3층으로 조성된다. <담양군 제공>

식, 소통, 강의, 이벤트 등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다.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해 치료와 더불어 휴식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담양군은 현재 군 기본계획상 유원지로 조성돼 있는 부지 일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지난 6월 착수했다.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 등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2025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 나주 청소년들 '지구 살리는 작은 움직임'

### 초·중 평생학습 '에코체인지메이커' 7개 학교·9개 학급 성과 공유 작품·활동 소개...환경 경각심 환기

나주시가 지역 청소년의 환경문제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위해 추진한 평생학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나주시는 최근 '지구를 바꾸는 작은 움직임, 2024 에코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주도로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제 해결 실천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최근까지 운영했다. 특히 '체인지메이커' 자격을 취득한 지도사들이 초·중학교를 방문, 환경 생태 문제 발견, 해결 방안 설계, 지속가능한 모델 찾기 등의 교육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자주적 역할을 키웠다.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엔 다도초, 봉황초, 빛가람초, 금천중, 노안중, 문평중, 영산중 등 7개 학교 9개 학급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교·학급별 발표를 통해 특색있는 작품, 활동을 소개하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겼다.



나주시의 2024 에코체인지메이커 성과 공유회에 참석한 학생 등이 환경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다도초 학생들은 생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활동을 담은 카드뉴스를 전단지로 제작, 교내 부착해 전교생이 볼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영산중 학생들은 버려진 병뚜껑을 활용해 플라스틱 남용으로 아파하는 동물들을 표현하는 작품을 제작하고 플라스틱 사용 자체 동전을 호소하는 플라스틱 '영' (zero) 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생 스스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환경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역 청소년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평생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 강진 소상공인 동영상 제작·마케팅 지원

### 주력 상품 홍보용 최대 200만원...다음달 5일까지 대상자 모집

강진군은 소상공인 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지원사업은 맞춤형 영상을 제작해 사업장과 주력 상품을 효과적

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앞서 대상자를 모집했지만, 평가 인원 미달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사업 진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 군에서 일괄 제작해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해 8월 5일까지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함평 농가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

### 농관원 함평사무소, 10월까지...가루쌀·조사료 품목 전수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역 함평사무소(농관원)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함평지역 농가(320여명, 1330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직불금 전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대상 품목 재배와 논 활용, 농지 형상·기능유지 등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농관원은 올해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농지 가운데 가루쌀·조사료 품목은 전수조사, 두류·옥수수 품목은 50%를 표본조사할 계획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되면 전체 면적 또는 일부 면적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

다. 휴경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 하우스, 유리온실 등)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조사료 품목도 알곡을 포함한 수확(사일리지작업) 여부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이행 점검을 통해 미재배, 휴경, 폐경 등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채명규 사무소장은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품목과 단가가 대폭 확대된만큼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은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함평-영광 군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협력

###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기부 확산 홍보 등 활성화 방안 논의



함평군의회가 영광군의회와 지난 23일 함평군의회 의정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는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현)와 지난 23일 함평군의회 의정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의회와 함평군의회는 지난 2023년 상호 간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력체계 유지,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기부문화 확산 홍보활동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향

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릴레이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장흥 물축제, 자원봉사자가 함께 합니다"

### 발대식 개최...안전·친절교육도

장흥군은 지난 22일 군민회관에서 제17회 장흥 물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총22개 단체 2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서문 낭독했다. 이어 물축제 100만 관광객 목표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을 염원하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친절교육도 진행했다.

안전교육에서는 행사장 내 위험 요소 파악, 응

급상황 대처법, 친절교육에서는 방문객 응대 요령, 서비스 마인드 등이 소개됐다.

올해 물축제에는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축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 간에 걸쳐 개최되는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현장에서 활동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성공적인 물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